

일본, 멕시코와 FTA 체결 합의

일본과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2002년 11월부터 정부간 협상을 개시한 이후 1년 4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3월 12일 FTA 체결에 합의하였다. 양국간의 FTA는 빠르면 2005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일본에 있어서 멕시코와의 FTA 체결은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번째이다. 싱가포르와는 농업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농업부문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로는 사실상 첫번째라고 할 수 있다. 일본·멕시코간의 협상 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다.

1. 협상 경과

일본·멕시코간 FTA 협상은 2002년 10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멕시코의 폭스 대통령간의 회담에서 합의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3년 10월에 각료급회의에서 합의직전까지 도달했으나 오렌지 과즙에 관한 멕시코의 추가 요구에 일본이 양보하지 않아 결렬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약간의 조정을 거쳐 지난 3월 12일 합의하였다. 앞으로 양국 정부는 협정문 작성작업에 들어가 2005년 1월 1일 발효를 위한 국내수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일부 중요 품목에 대한 관세율 등은 발효 이후 재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다.

2. 주요 내용

2.1. 중요 5품목

일본과 멕시코간의 FTA 협상에서 최대의 초점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오렌지 생과, 오렌지 과즙 등 농산물 5대 품목에 대한 협상이었다. 그 중에서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차액관세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양국은 치열한 공방을 거쳤다. 대일 돼지고기 수출 확대에 최대의 관심을 가진 멕시코에 대해 일본은 차액관세제도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과제이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지나치게 고집한 나머지 다른 수출국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관세반감 쿼터’를 설정한 것이었다. 돼지고기 이외에 오렌지 과즙에 대해서는 관세반감 쿼터를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차액관세제도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저가일수록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수입가격이 1kg당 393엔까지는 관세포함 가격이 409.9엔이 되도록 하고, 393엔을 초과하면 4.3%의 관세를 부과한다. 또 48.9엔 이하의 품목은 361엔의 종량세를 부과한다. 이번 멕시코와의 FTA에서 일본은 차액관세제도를 유지하되, 단지 393엔 초과품목에 대한 세율을 2.2%로 반감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쿼터(관세반감 쿼터)를 설정하여 저가품에 대한 수입금지장치를 남겨놓았다.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당초 관세반감 쿼터를 발효 5년째 7만 5,000톤으로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8만톤으로 증액, 합의하였다. 이 쿼터는 차액관세가 부과되는 가격수준을 상회해도 2.2%의 관세를 부과하는 물량이며, 더구나 이 물량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관세가 4.3%에서 2.2%로 반감한다고 해도 수입업자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차액관세제도가 존속하는 것만으로 저가품목에 대한 수입저지효과가 있으므로 현행 수입물량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돼지고기 수출국이면서 수입국이기도 하다. 멕시코 생산자는 일본 식육업체에게 수요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우 멕시코의 수출여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한다. 관세반감 쿼터를 소화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돼지고기시장은 종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 일본의 돼지고기 차액관세제도와 멕시코와의 합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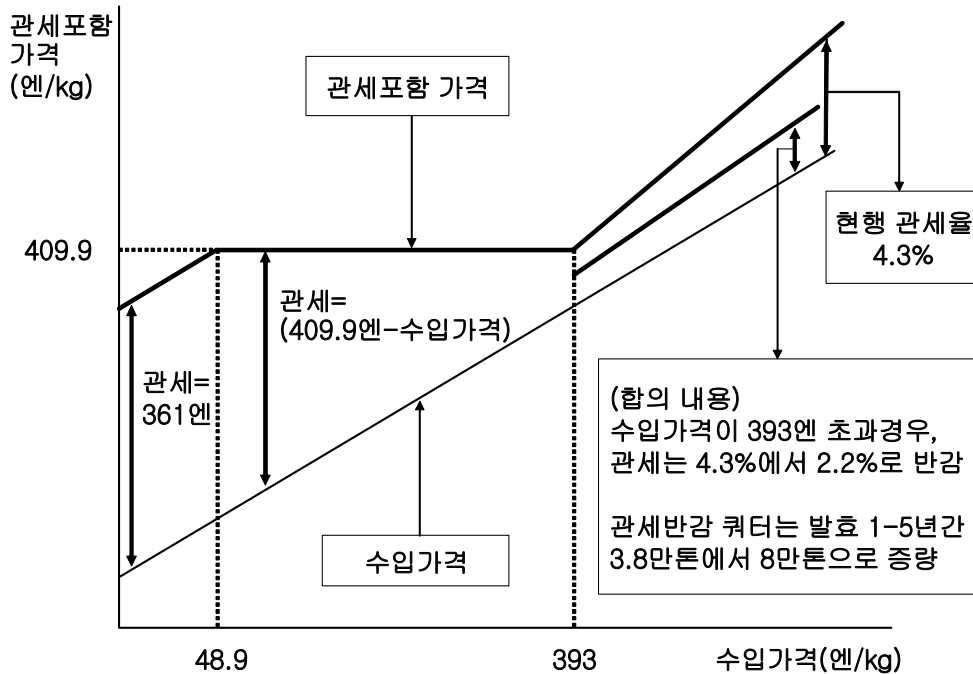


표 1 일본의 농산물 5대 품목 합의내용

품목	현행	FTA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액관세제도 -1kg 393엔 초과품목은 4.3% 부과 ○ 02년 대멕시코 수입량 3.8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kg 393엔을 초과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반감(2.2%)하는 관세반감 쿼터 설정 ○ 관세반감 쿼터 : 초년도 3.8만톤~5년째 8만톤 ○ 차액관세제도는 유지
소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 38.5% ○ 대멕시코 수입실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년간 무관세 : 10톤 ○ 저율관세 쿼터 : 3년째 3,000~5년째 6,000톤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있는 것 : 8.5% ○ 빠없는 것 : 11.9% ○ 대멕시코 수입실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1년간 무관세 : 10톤 ○ 저율관세 쿼터 : 2년째 2,500~5년째 8,500톤
오렌지 과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 25.5%, 29.8% 또는 1kg 23엔 중 높은 쪽 부과(가당과 농축농도별 3종류) ○ 02년 대멕시코 수입량 : 4,0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반감 쿼터 설정 ○ 관세반감 쿼터 : 초년도 4,000~5년째 6,500톤
오렌지 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1월 : 16% ○ 12~5월 : 32% ○ 02년 대멕시코 수입량 : 4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년간 무관세 : 10톤 ○ 저율관세 쿼터 : 3년째 2,000~5년째 4,000톤

주 : (1) 닭고기, 소고기, 오렌지(생과)의 협정발효 2~3년째 이후의 저율관세 쿼터의 관세율은 발효 1~2년째에 재협의를
 (2) 모든 품목의 5년째 이후의 쿼터 및 관세율은 재협의를

최근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의 43%~46%로 추이하고 있다. 만약 멕시코에 주어진 관세반감 쿼터를 채운다고 해도 일본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 수입비율이 급증하지 않으면 단지 다른 나라에서 대체될 뿐이라는 것이다.

오렌지 과즙도 돼지고기와 같은 관세반감 쿼터를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발효 초년도 4,000톤에서 5년째에 6,500톤으로 멕시코측에 대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멕시코측이 관심이 높은 소고기, 닭고기, 오렌지 생과는 그동안 멕시코의 대일 수출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발효후 1~2년간 판매촉진 용으로 10톤을 무관세 쿼터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3년째부터 5년째까지 소고기는 4,000톤에서 6,000톤으로, 닭고기는 2,500톤에서 8,500톤으로, 오렌지 생과는 2,000톤에서 4,000톤으로 저율관세 쿼터를 늘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저율관세 쿼터에 대한 세율은 협정 발효후에 재협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세율에 대한 협의개시 시기는 닭고기는 1년째, 소고기와 오렌지 생과는 2년째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저율관세의 세율을 확정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일본이 FTA 협상을 진행중인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이다. 특히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는 2004년 중에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멕시코와의 닭고기 관세율이 사전에 결정되면 닭고기 대일 수출에 관심이 높은 태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2.2. 제외 품목

한편, 5대 중요 품목이외에 아보가도, 아스파라가스, 호박, 키위, 바나나, 포도 등과 같은 청과물, 벌꿀, 커피, 칠면조고기 등 멕시코에서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은 협정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쌀, 소맥, 사탕, 사과, 밀감, 파인애플, 유제품 등 일본의 중요 품목은 제외하였다. 또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규칙도 포함하였다.

3. 향후 전망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멕시코가 이미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견본으로 하여 이 수준으로 멕시코에 시장개방을 요구하였다. 반면에 멕시코에게는 농업부문 FTA 실적이 없는 일본에게 무관세를 요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농산물 300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철폐 또는 저율관세 쿼터를 설정하는 등 비교적 소폭 개방에 그쳤다.

표 2 일본의 FTA 협상국

상대국	체결	정부간 협상	비고
싱가포르	2002. 1 체결		
멕시코	2004. 3 합의		
한국		2003. 12 개시	2005년 체결예정
말레이시아		2004. 1 개시	2004년 체결예정
태국		2004. 2 개시	"
필리핀		2004. 2 개시	"

일본은 FTA에 의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안정보장, 그리고 구조개혁 노력 등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카메이(龜井 善之) 농림수산업 장관은 합의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농업에 비교적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협상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한 협정이었다. 그러나, 멕시코와는 농업부문도 포함하여 관세 철폐나 인하를 통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는 진정한 의미의 FTA이다. 돼지고기와 오렌지 등에 대해 관세 철폐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저율관세 쿼터를 설정한 것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돼지고기 차액관세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저가 품목의 대량 수입을 방지하였고,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반감 쿼터를 설정함으로써 대량 수입을 방지하는 장치를 남겨놓았다. 이것은 향후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즉,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경험으로 일본은 현재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협상 결과를 관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과는 2005년, 나머지 국가와는 2004년중에 FTA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신속한 FTA 체결을 위해 직접지불제도의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농업개혁도 강구하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